

養鷄流通改善을爲한

기본대책



이 영 목

(연합수산대표, 양계협회이사)

양계업이 양계산업 즉 기업화된 양계업의 현실에 처한 양계인의 입장에서 우선 그 많은 양계인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할때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정책적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주신 당국자 이외에도 유관 업체의 꾸준한 기술적 협조 내지 직접적이 지도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미나 나 이와 유사한 집회에 가면 늘 똑같은 얘기가 왕왕 나오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되돌아 가볼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발전되기 까지도 많은 기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근 30년에 걸친 부단한 노력의 결과 이겠지요.

축산물 수요는 첫째로 경제환경 둘째영양섭취 허용량 마지막으로 안정적 공급의 세가지 요건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경제환경은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생활수준의 변화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성 식품에서 동물성 식품으로 그 소비 패턴이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품중에서도 비교적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으로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육류의 소비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양섭취 허용량은 국민 1인당 1일 식품공급량의 동물성 식품이 차지하는 절대량 이상의 Portion을 넘을 수 없으며 즉 영양섭취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계업을 생업으로 꾸준히 해오던 지금

은 큰 성공을 하였고 또 지도적 인물이된 어떤분의 말씀을 빌리면 양계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시장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하고 예견하기는 돌아가는 과녁을 맞추는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과녁은 화살이 맞춘 수치를 바로 인식할수 있으나 이 돌아가는 과녁은 그 회전이 중지된후 한참은 살펴야 그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이는 이처럼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계육은 다른 육류와 경합되어 있고 입장이고 늘 상관 관계가 있으며 식품의 영양가치 면에서는 월등하나 기호성에는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단백질, 영양적인면 뿐 아니라 고기의 생산성에 있어서도 월등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이 닭고기를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통계의 수치는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공급에는 일반 소비자가 개인의 소득범위 내에서 항상 구입 이용할수 있도록 가격 유지와 수요의 부족됨이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상태가 바람직 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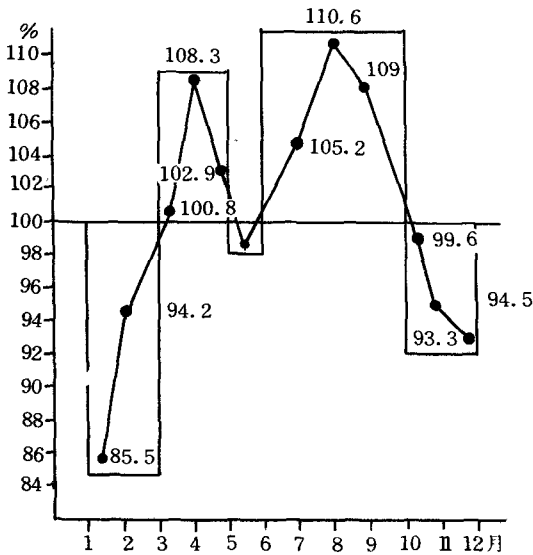
양계의 발전

물론 수요증가는 양계업에 많은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으며 실용계의 보급, 사료의 원활한 공급, 양계강습회 양계, 기술 지의

발간등을 통하여 양계업은 전문화 되거나 기업·양계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전업이나 기업으로서의 양계를 전전한 산업으로 육성키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양계산물의 생산과잉에 따른 불경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알고 계시지만 양계의 팽창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변동의 추이가 매 일정기간에 사이클이 형성되곤 합니다. 이하의 도표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肉鷄(브로일러) (71~76平均)



- 1) 가격유지시기 3~5월 7~8월
년 5개월 미만
- 2) 가격적자 시기 10~2월 6월
년 7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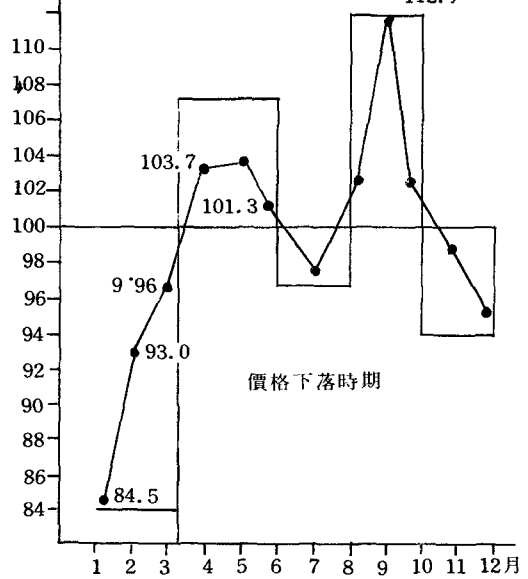
도표 1은 71년~76년 동안

6년간의 평균가격을 100으로 하여 월별 가격변화의 폭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가격유지 시기와 원가적자 시기가 각각 6개월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란가격의 변화

- ① 가격 유지 시기 4~6, 8~10
- ② 가격 적자 시기 11~3월 7월

鷄卵價格 變化(71~76平均) 112.1



이상의 도표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산물의 비축 저장만이 문제의 해결에 Key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축할수 있는 자금의 확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생산 확대가 쉽게 일어나고 있고 사업의 형태 자체가 기업적인 최근엔 산물의 수급을 위해 얼마만큼 양적인 생산만이 수확인 시점을 이미 한국 양계업은 지났고 이 생산물을 어떻게 값어치있게 Concentrate(집약), 다시 말하여 생산물의 상품화를 시키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비축의 단순한 유통로의 순간적인 정상화 자체가 아니라 산물의 가공 및 내국인의 기호에 적합한 식품이 되도록 적극 개발하고 이를 꾸준히 노력하여야 이상과 같은 경기의 회복 불경기가 없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한 산업의 기반 조성이란 확고하고 영속적인 가공 제품화만이 안정기에 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양적인 증대의 조절은 사료곡물 내지 종계의 수급계획을 철저히 하여 이상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한 양계업을 등록키로하여 정확한 統計를 낼수 있음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종계 및 적극적인 사료의 개발

우리나라 양계업이 축산 특히 기업적 축산의 주도적 역할에 대하여 재론할 필요도 없으나 항상 이 종계 문제로 정책적인 배려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의 외국계 수입에 대한 공과는 많은 의 되었다고 생각은 다시한번 검토 하여 보면 1970년도 까지는 P. S 형태로 수입되었으며 1971년에 47만수로 그 가액은 767,000 \$로 평균 수당 가격은 원화로 797원 48천이었으며 그후 1971년부터 종계수입 형태로 P. S에서 G. P. S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계통수도 산란용에 있어 10종이내로 육용계에 있어서도 5~6종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사양 조건에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고 계통으로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실제적으로 1974년 부터 수입 창구가 좁혀지기 시작했고 현재 자유수입이 아니고 농수산부 장관의 추천으로 묶여지면서 부터 그 양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외국계의 도입으로 국산계가 최대의 위축되다 일정기간의 수입 통제에 의거 국산계 개발이 적극화 되었으나 이에따른 실제 업계의 수난은 상당히 심각 하였습니다. 종계 즉 P. S 가격은 국제 가격의 근 배로 형성 되었으며 실용추의 분양가격도 상상할수 없고 심각성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실사양가 입장에서 종자의 중요성이 축산의 기초적인 중요 요망이지만 우수하고 능력이 좋은 계통을 구득하기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73년 사료곡물의 파동으로 급격한 종계수수의 격감으로 75~76년까지 최상의 경기유지를 하게된것 자체가 외국계 수입의 금지에 그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적은 쥐를 없애기 위해 굶주린 큰 쥐를 육성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국산계의 개발목표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

습니다. 희망차고 의욕적인 그런 목표하에서 완전히 능력이나 실사육자의 입장에서 우수한 계통이 창출될때 까지는 한계적인 우수 계통의 수입은 한국 양계를 더 크게 성장시킬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더더우기 전체 사양가가 각 우수 종자 개발의 시험장화 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급의 기초적인 경제 원칙에 따라 가격의 적정선도 없이 임의대로 추대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 경제적인 차원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실용 육계용추 일수가격이 단일년에 80~60원에서 200원대 이상을 지불해야함은 非理고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을수 없는 비극이라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당국은 이런 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실사양가의 부당한 지출이 일어나지 않을 충분하고도 보호적인 조치를 늘 강구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얘기하는 바입니다.

양계업의 취약성은 사료에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곡류가 필요하다고 것입니다. 그러나 사료 효율면에선 계육이 타육류에 비하여 경제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국민 건강향상을 위하여 절대량의 동물성 단백질 필요하고 이 필요한 동물성의 단백질의 공급원은 계육으로 충당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초식동물로 육류수요를 충당하기엔 너무나 벅차므로 또한 작년 사료제조 통계를 보더라도 현 여건하에서 초식 동물의 고기생산에 야생초나 재배 초지에 의거한다면 생산비 자체는 현재 가격구조로 힘들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생산을 제조한다는 뜻에서도 계육은 중점을 둘수있는 육류라는 것을 본인이 여기서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사료로 이용되지 못하고 부산폐기물이나 여지의 사료원을 적극개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가능 경사도라 할지라도 입업의 수림지역 보다 목초지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더 있느냐 하고 연구는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함이 바람직스러울것 같습니다.

본인이 구주지역에서 많은것을 볼수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구주지역의 기상조건은 연 강수량은 한국보다 못하나 분포가 연중 고르고 폭우로 집중 몬순이 없기 때문에 초지농사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족한 강우량을 배꾸기 위한 관개시설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우량은 훨씬 많아도 집중적인 우기를 갖은 한국의 초지 농업은 더 많은 애로와 시설의 투자를 요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생산여건 자체가 취약한 한국에선 100% 아니 그 이상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축산물의 자급두를 95%에 맞추고 그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의견 입니다. 해외시장 및 국제 교류를 무시한 보호산업의 한계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3. 양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결은 바람직하며 이처럼 일원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산물의 집보방법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일원화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대량소비를 유도할수 있는 가공업체의 부재인 상태에선 어려운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계육 및 난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업의 적극육성 방안을 관계기관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축산진흥의 방향은 생산기본조성이 중요할 뿐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가공, 처리, 식품의 고급화를 위한 업체를 지도 육성 금융지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바람직하며 이 같은 차원에서 배전의 노력을 할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4. 계절에 따른 양계산물 가격변화

우리나라가 고대로부터 식성자체가 육

식 위주가 아닌 채식주의 였습니다. 이는 채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존자원이라든가 여건자체가 풍요하지 못한데서 기인하고 것입니다. 이는 귀하고 고가인 식품은 특별한 용도이외엔 소비할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탓으로 특히 계절적인 요인을 만들어 이런 특별한 시기에만 특별 식품으로 소비를 하도록 하였읍니다.

앞으로 국민체위 자체가 국력인 오늘 가능하면 전천후 육식의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되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것이 좋을것이며 축산인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몇년전에 즉 74년 양돈이 불황일때 전국 주요 지역에서 미국양돈 전문가의 함께 Seminar를하고 다녔읍니다. 그때 그 불경기를 해소하는데 그때의 통계의 총두수가 1백403만두~50만두였는데 결국 문제는 20만두의 과잉으로 큰 홍역을 치루었읍니다. 그때 국민 1인당 돼지고기 1근600g씩만 더 소비한다고 하면 그 도산지경의 불경기는 해소되고도 남았읍니다. 가능한 소비가 미덕인 그런때가 빨리 도래 하도록 다같이 노력 합시다.

5. 질병퇴치에 대한 문제점

현재까지 외국계 도입의 공과에서 새로운 질병이 즉 뉴켓슬, 뇌척수염, 마해병이 외국계의 도입이 주였다고 하나 그동안의 백신의 개발로 많은 예방이 이루어져 좋은 효과를 보다가 작년엔 도입제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켓슬 병의 발발로 곳곳에서 큰 피해를 보았던 쓰라린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현재 3대 육종농장이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백리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는 최근 중계의 부족상태에 편승한 결과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이루어질 배려가 필요합니다. 질병에서 오는 피해가 연간 누계는 너무나 막대함으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